

# “가족과 함께해요”... 식품업계 ‘가정의 달’ 마케팅 열풍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선물 수요 증가  
한정 판매·할인 행사 등 이벤트 마련

식품업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있어 선물 수요가 증가한다. 이에 한정판 제품, 할인 행사 등 이벤트를 선보이는 중이다. 일부 업체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제과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피터래빗 선물세트’와 ‘다이노코어 선물꾸러미’ 2종의 중합선물세트를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피터래빗 선물세트’에는 왓타 딸바, 뉴존쫐니 청포도, 청포도 캔디, 칸초, 씨리얼, 꼬깔콘, 치토스 등 견, 캔디, 비스킷, 스낵 총 8종의 다양한 종류의 과자가 들어 있다. 권장소비자가격은 1만원이다. ‘다이노코어 선물꾸러미’는 꼬깔콘, 치토스 총 5종의 스낵 제품만을 넣어 스낵을 좋아하는 어린이를 위해 구성하였다. 권장소비자가격은 6000원이다.

파리바게뜨가 ‘감사와 사랑이 빛나는 5월’을 주제로 기획 제품 30종을 출시했다. 파리바게뜨는 ‘노래하는 핑크퐁과 상어가족의 피크닉’, ‘콩순이 공룡송이케이크’, ‘이집트에 간 트래블러 뽀로로’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와 협업한 제품을 선보였다. 또 ‘샤이닝플라워케



지난해 ‘스위트홈 제22회 오투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에 참가한 가족들이 요리경연을 펼치고 있다. /오투기



2일 파리바게뜨 카페 대학로점에서 모델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SPC그룹

이크’, ‘감사가득 플라워케이크’, ‘감사의 핑크꽃송이’ 등 가정의 달을 상징하는 꽃을 모티프로 디자인한 제품도 내놨다. 이외에도 ‘피치블라썸롤’, ‘제주하라봉&딸기요거트 케이크’ 등 다양한 과일을 활용한 롤케이크도 준비했다.

신세계푸드 외식브랜드들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올반에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고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를 동반하고 식사를 한 고객에게 스테들러 색연필을 선착순 2000개 증정한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아 6일부터 13일까지 가족 고객에게는 웰컴 드링크를, 부부의 날을 기념해 20일부터 24일까지 부부 또는 커플 고객이 식사를 할 경우에는 1인에 한해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노보노에서는 6일까지 어린이 고객에게 솜사탕을 제공하고 어

린이날 당일에는 페이스 페인팅과 문구류 300세트 증정을 진행한다. 또 7일부터 22일까지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식사 금액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데블스도 어버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을 기념해 웰컴 드링크 제공, 아메리카노 1잔 무료 증정, 5만원 이상 구매시 샐러드 1개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리아는 신제품 빙수 2종 출시와 함께 다양한 할인 혜택 이벤트를 운영한다. 빙수는 푸짐한 양을 바탕으로 가성비 높은 제품이다. 팔짱과 인절미 떡, 후르츠믹스를 사용한 오리지널 팔빙수와 메론맛 큐브 아이스크림과 메론 시럽을 사용한 메론큐브 빙수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5월 한 달 간 비프바베큐, 새우, 클래식 치즈, 핫크리스피 버거 4종과 최근 출시한 베이컨롱치즈스틱, 포테이토와 음

료로 구성된 세트의 정석 4종을 운영한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9월 선보인 60cm 피자추 대형 인형의 인기에 이어, 50cm 포켓몬스터 캐릭터 잠만보와 이상해씨 캐릭터의 바디 필로우 대형 인형을 모든 세트 구매시 2만5000원에 판매한다.

KGC인삼공사는 ‘면역력 활짝 피워라’ 행사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이 행사는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20여종의 선물세트(다보록) 및 ‘화애락’, ‘홍천옹’, ‘홍삼톤골드’, ‘홍삼달임액’ 등 주요 인기 제품에 대해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정관장 매장에서 진행하며, 정관장 멤버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보르미울리 드링크즈’를 증정하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멤버스 포인트를 추가 적립 해준다.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있

다. 오투기는 오는 12일 과천 서울랜드 피크닉장에서 ‘스위트홈 제23회 오투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 축제에는 스위트홈 실현과 건강한 가족문화를 선도하고자 1996년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총 3000여 가족, 약 1만20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예선을 거쳐 총 150가족이 참가하게 된다. 참가가족은 자유경연과 지정경연으로 요리경연에 참여하며, 외국인의 가족도 함께해 국내 요리는 물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이색요리까지 접할 수 있다. 요리경연뿐만 아니라 오투기 제품 시식코너, 오투기가 후원하는 심장병 완치 어린이 요리교실, 어린이 놀이존,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린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인 오투기상 수상가족에게는 500만원 상당의 주방가전제품 교환권 등 총 12가족에게 푸짐한 경품이 주어진다.

풀무원의 김치박물관 ‘뮤지엄김치간’을 통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김치와 김장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료 행사를 마련한다. 이 행사는 어린이 대상 입장료 무료, 김치 담그기 체험, 제품 증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날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이마트, ‘스파’와 맞손... 中 수출 확대

상품공급 중심 업무협약 체결  
스파, 폭넓은 판로 확장성 장점

이마트가 글로벌 유통기업 스파와 함께 중국시장 수출을 확대한다.

이마트는 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글로벌 유통기업 ‘스파 인터내셔널’과 ‘이마트-Spar’ 상품공급을 중심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양사간 수출 상품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갑수 이마트 사장과 Tobias Wasmuht 스파 인터내셔널 대표(CEO)가 참석한다.

특히 이마트는 이번 ‘스파’와의 협약을 통해 중국 오프라인 시장 재공략에 나선 방침이다.

‘스파’는 1932년 설립된 연 매출 32조원 규모의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현재 47개국에서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할인점, 편의점 등 다양한 업태를 통해 1만 250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이마트와 업무협약을 맺는 ‘스파 인터내셔널’은 중국을 비롯한 30여 개 국가에 파트너사를 두고 유통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 사업의 경우 ‘스파 인터내셔널’ 내에서도 3위에 해당하는 대규모 시장이다.

또한 스파가 세계 곳곳에 매장을 거느린 유수의 글로벌 유통기업인만큼 향후 폭넓은 판로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것 역시 큰 이점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노브랜드, 피코크, 센텐스(화장품) 등 자체 상품을 비

롯해 우수 한국 상품을 ‘스파 차이나(Spar China)’의 400여개 매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약식 일정에 맞춰 ‘스파 차이나’에서 총 24명의 대규모 바이어 방문단이 구매 협약을 위해 이마트를 방문한다.

이들은 직접 이마트의 매장, 물류센터 등 유통시설들을 둘러보고 상품공급 계약 및 상품 선정을 위해 이마트와 긴밀한 스킨십을 가질 예정이다.

심진보 이마트 트레이딩 팀장은 “이번 협약은 이마트가 추진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상품 수출 확대와 전문점 진입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스파’와의 긴밀한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유통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용 기자



홈플러스가 9일까지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가족 단위 고객들을 위해 과일, 간편식, 대용량 먹거리 상품 할인전을 펼친다. /홈플러스

## 홈플러스, 황금연휴 앞두고 먹거리 할인

신선·가공·제과 등 물가부담 낮춰

홈플러스가 어린이날 황금연휴 기간 가족단위 고객들을 위해 신선, 가공, 제과 음료 전 카테고리에 걸친 먹거리 상품 할인전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행사카드(신한·KB국민·삼성) 결제 시 ‘유명산지 수박’을 2000원씩 할인해 각 1만4900원(5~6kg), 1만5900원(6~7kg)에 선보인다. ‘국내산 방울토마토(2kg·목동점 제외)’는 9990원에 판매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스프리 점보 골드키위(뉴질랜드산)’ 10개 구매 시 9990원, ‘프리미엄 스위트오·감숙왕 바나나(필리핀산)’는 송이당 3990원에 마련했다.

온 가족이 함께 먹기 좋은 대용량 먹거리도 저렴하게 선보인다. ‘두 마리 후라이드 치킨(팩·원료육·국내산 10호·동김해점, 영도점, 밀양점 제외)’을 1만1980원에, 고시히카리쌀로 만든 ‘셰프 초밥’을 20개 7990원에 판매한다.

여행지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HMR(가정간편식) 상품도 마련해 ‘소곱창전골(1.2kg/팩/원산지 별도표기)’을 1만1900원에, ‘의정부식 부대찌개(750g·원산지 별도표기)’와 ‘시원하고 칼칼한 부대찌개(735g/원산지 별도표기)’를 각 4990원에 판매한다.

캠핑 또는 여행지에서 유용한 정육상품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1등급 이상 국내산 일품포크 삼겹살/목심(국내산)’과 ‘초이스 부چه살(미국산)’을 100g당 각 1590원에 마련했다.

이밖에도 홈플러스는 ▲제과/음료(20여종) 각 500원 균일가전 ▲여행지 필수먹거리인 커피라면, 양념장, 통조림 등 나들이 먹거리(100여 종) 각 1000원 균일가전도 마련해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덜것 단 방침이다. 여기에 3일부터 16일까지는 ▲아이스티(40여 종) 1+1 행사,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단 3일간은 ▲홈베이킹믹스(40여 종) 1+1 ▲잼/스프레드(30여 종) 1+1 특템잔스도 함께 마련해 주부들을 위한 알뜰쇼핑 기회도 제공한다. /박민용 기자

## BBQ, 배달용 초소형 EV차 ‘트위지’ 도입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치킨 업계 최초로 초소형 EV(전기자동차) 차량인 ‘트위지(Twizy)’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패밀리리타운점, 종로본점 등 BBQ 직영점에 우선 도입되어 실제로 배달에 이용되고 있으며, 5월 내 BBQ 패밀리(가맹점, 이하 패밀리)에 60대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총 1000대를 패밀리에 도입 시킬 예정이다.

트위지는 초소형 전기차로, 가장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도심형 이동수단이자 운송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트렁크 공간이 최대 180L 까지 확장되며, 도어가 슈퍼카처럼 위로 올라

가는 시저빙으로 90도까지 열리는 등 근거리 소매물류 운송차량에 최적화된 모델이다. 무엇보다 트위지에는 차내 보호장치와 4점식 안전벨트 및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어 배달 사원의 안전까지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전기차가 자랑하는 저렴한 연료비(월 2~3만원)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며, 대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친환경적인 배달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BBQ는 기존 배달용 오토바이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BBQ-서울특별시-르노삼성자동차 삼자간 M



BBQ가 배달용 초소형EV(전기자동차) ‘트위지’를 도입한다. /제너시스BBQ

OU’를 체결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트위지를 도입했으나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차종분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등 규제에 막혀 운영이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올해 규제완화로 인해 도입이 가능해져 치킨을 실은 BBQ 트위지가 도로를 누빌 수 있게 됐다. /박민용 기자